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건설기술 혁신으로 경제활력에 앞장”

-7일 건설기술 업계 간담회서 건설기술 혁신·경쟁력 강화 당부

-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적극 지원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.7.(화) 12:00분, 건설기술 업계 간담회*에서 건설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, 한명식·송명기 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등 8명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우리 건설기술 업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설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

○ 드론, 건설정보모델링(BIM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였다.

○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건설기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사업으로,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사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.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와 함께, 김 장관은 건설기술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,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경제활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.

2020. 4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